

위탁교육을 준비하는 모든 군인들께...

대위 정 0 0

1. 소 개 (계속 당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비판과 의문, 의심은 개인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길..)

위탁교육에 앞서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은 버린 채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분들이 저(17년도 임관-의대 2번, 국외 1번, 국내 1번 지원)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저도 위탁교육 준비간 첫 해(18년)에는 정말 많은 고뇌와 고민에 빠져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위탁교육 중인 선배들에게 묻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내가 지원한 과정에 학교 선배가 있더라도 모르는 선배들에게 대뜸 위탁교육관련 질문하는 그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기에 저로서는 궁금한 질문만 묻고 해결했습니다. 이 문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처음 준비해서 지원하거나 위탁교육을 꼭 가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주 대상은 저와 동기인 17년도 군번과, 18년도 군번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기에 이 글 하나만으로 '나는 위탁교육 받기에 한참 부족하다' 이런 자신의 위치를 판가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진, 그동안 가졌던 생각과 고민들을 최선을 다해 무료로 ^^ 여기에 다 녹여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동기, 선/후배)들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만 분명 제가 모르는 분들도 읽을 수 있기에 경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부사항) 저는 위탁관련된 업무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단순 4번 지원하고, 그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해본 것 이외에 의심이 가는분들은 본인이 직접.. 직접 분석하셔서 소정의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위탁교육에 대해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결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 어떤 곳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

가. 질의응답

구 분	비 고
1	<p>Q) 위탁교육 지원시 1차와 2차가 나뉘져있던데 그건 무엇인가요?</p> <p>A) 1차는 말 그대로, 위탁교육 계획(공고)이 7~8월 경에 나오는데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과정 국내석사, 국방대석사, 국외석사 등 다양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격요건이 분명 각각 있을텐데 1차 합격을 위한 본인의 능력치는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최소점수(TOEIC, TOEFL 등)만 만족하고, 별도의 징계, 처벌현황이 없다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위때는 1차 중대장 또는 대위 참모 1개직위를 이수해야 하는데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p> <p>A) 2차는 1차 합격한 인원들에 한해 국방대학교(논산, 장소는 바뀔수 있음)에서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인원들 중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정에 합격한 인원들에 한해 면접날짜가 잡히고, 쉽게 말해 '너 어느정도 준비해서 왔고,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받을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이 있고, 이때 준비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면접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집단면접은 아무래도 임의 주제가 던져지고 본인의 의견을 찬반토론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보다는 정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코로나19가 터져버려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런 기대감일뿐 면접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좋았던점은 개인면접만 진행하고 집단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국방대학교까지 4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10분만에 면접이 끝나니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을 받았던 21년도 면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 그건 그동안 나왔던 세부질문항목과 1주면 준비가능한 면접STORY를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지면 글이 읽기 싫어지기 때문이죠^^.</p>
2	긴 글을 읽었으니,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의 궁금증을 해결해봅시다

	<p>Q) 국방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정말 멀리 사는 군인인데....</p> <p>A) 저는 강원도 양구, 경기도 연천에서 출발해서 면접을 봐야 했기에 이 또한 많은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국방대학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접생이나 일정이 있어서 출장을 오는 군인분들에게 어찌면 사단급 회관? 느낌의 숙소입니다. 국방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스트하우스 정보가 있으니 혹시나 면접일정에 가야하는데 논산과는 정반대인 3군단, 8군단 등에 사시는 분이면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본인의 노력이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번의 면접간 2번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습니다. 시설은 매우 매우 우수한 숙소입니다. 다음날이 면접이라 긴장이 조금 되었을 뿐...</p>
3	<p>Q) 그렇다면 위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p> <p>A) 사실 저로서는 4번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 준비했던 18년도 서류가 거의 Ctrl c+v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 과정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작업이 필요했지요. 필요한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매 년마다 위탁교육 계획 공고가 내려오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작년 계획을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구나 가늠이 되고, 모든 문서작성과 지원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지원합니다. 문서작성을 개별로 하지만 결국에는 지휘관 의견서와 각 부대 인사실무자(사단급 이하제대 - 인사관리장교)가 필요합니다.</p> <p>A) 필요한 서류는 결론적으로 본인 지원동기 및 왜 지원했는가? / 자격증(영어성적, 기타 자격증 등) / 학사성적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온라인서비스에 성적발급 시스템이 있음)</p> <p>A) 이외 서류 준비할 사항은 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지원하면서 어차피 출력, 스캔을 해야되는 작업이기에 이것까지는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 번 해보면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모두 할 수 있습니다^^.</p>
4	<p>Q) 소위~중위, 중위~대위(진), 대위 과정의 위탁교육</p> <p>A) 저는 전자도 해보았고, 후자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후자가 되어서 22년도 전기 위탁교육 입학예정입니다. 중위~대위(진)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들을 더 빨리 당겨서 쓴다는 의미로 해석해보면 되겠고, 주요 과정은 의대 학사과정, 외대과정, 연구개발, 교수자원 등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지원해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의대 학사과정, 국외 석사과정에 지원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대 학사과정은 매년 의대 7명, 수의 1명, 치의 1명 총 9명의 의사가 될 인원들을 선발합니다. 의대 지원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중 1가지는 작년에 어떤 군번이 합격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본인 "동기"가 해당과정에 작년에 붙어있다면 본인이 올해 한번 더 지원해보려는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ㅠ 저도 한번 더 도전하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았지만.... 그냥 지원에 의의를 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출신(육사,삼사,학군,학사) 비율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는 작년에 붙은 선배들을 보면 분명 알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먼가 극히 주관적이라서 궁금하면 연락바랍니다 ㅎㅎ)</p> <p>A) 다음은 중위~대위(진) 과정입니다. 연구개발, 교수자원, 국외석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 국외석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제가 국외석사를 왜 지원했는지 궁금했는데, 그 때만 큼은 설마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가 합격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외 과정은 학사(대학교 시절) 성적도 반영되지만 무엇보다 외국(미국, 영국 등)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토플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최소 기준이 81점이지만 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소기준일뿐 120점 만점에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한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을 달성할 수 있겠조??? 그래서 국외과정을 지원하는 분들께서는 토플 성적을 높이는데 중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는 과정에 다른 분들이 지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동기중에 혼자만 지원해서 붙은 인원들도 있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p> <p>TIP)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에 작년에 선발된 선배나 동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인원들에게 물어보는게 어떻게 보면 1:1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원한 부분만 전달해주는 것이기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p> <p>A) 다음은 제 동기들이 관심을 가질 대위과정(정책, 국방관리, 획득전문 등)입니다. 국내과정을 위주로 준비했고 대부분이 국내 민간대 석사, 국방대 석사 과정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과정(일부 과정은 아닐 수도 있음)은 1차 중대장 또는 대위 참모급 이수를 한 사람이 지원가능 요건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장을 중간에 끊고 지원을 해도 되나요? 이는 국인체 E상담 1:1 질문을 통해 물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답변해줄 겁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보직을 끊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 '22년 6월에 중대장이 끝나는데 그 이후가 위탁시기면 어떻게 하나요? 중대장을 1개 분기 연장을 하거나 참모보직을 하면서 위탁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17군번 동기는 이렇게 하는 경우겠조? 세 부적으로 궁금한건 반드시 육군 전문가(국방인사정보체계 - E상담 - 대위보직장교 또는 국내교육장교 등)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 여기서 국내 과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이게 궁금한 점일텐데, 제 동기들 중 일부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나, 문과인데 자리가 없다, 국방대를 해야하나 민간대를 해야하나 이런 질문입니다. 솔직히 정답을 드릴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자신이 속한 부대(대대, 연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해당 부대(지휘관, 동료 및 선후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위탁교육 준비(영어, 개인공부)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는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과시간에 위탁교육 준비를 하는 인원들은 없겠지만 무언가 위탁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업무, 직책을 소홀시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요?? 평정뿐만 아니라 위탁교육에 대한 합격여부도 불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준비할 건 영어성적과 해당 부대에 있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어성적은 육

	<p>군 위탁교육 계획상 나와있는 최소점수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육군에서 제시하는 합격자들은 평균 890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배 중 800정도만 되었는데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점수 높게 받는게 더 좋겠죠??? 군 토익시험 한달에 2번정도 있으니 휴가기간 시간 잘 활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p> <p>- 혹시 OPIC 성적이 필요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영어반을 수료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국내과정은 OPIC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OPIC을 준비하려는 인원들에게 자기가 점수가 필요한데 시간은 없다?? 책으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파고다 - 이현석 OPIC”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IH, IH, AL 맞고 그 이후에는 공부를 안했습니다 ^^..... 다시 보면 아마 더 못볼지도...</p>
5	<p>Q) 주력기수?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p> <p>A) 위탁교육 계획, 공고상에 나와있지 않은 질문이고 사실상 조금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급이나 교육에도 분명 해당 임관기수가 주력으로 작용되는 해(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p> <p>- 대위 석사과정 : ‘21년도 위탁교육 결과를 보면 주로 ’15, ’16년 임관하신 선배들께서 되셨습니다. (일부 선배들도 되셨기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p> <p>: ‘22년도 위탁교육 결과는 내년이겠지만 아마 ’16, ’17년 임관하신 분들이 주력일겁니다</p> <p>: ‘23년도 위탁교육 결과는 내후년이겠지만 아마 ’17, ’18년 임관하신 분들이 될것입니다.</p> <p>- 주력기수가 00년 군번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기를 대략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p> <p>-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 분들은 최근 2~3년 위탁교육 결과를 보고 몇 년도 군번들이 되셨는지 보시면 그렇구나... 라는 데이터를 가질 것입니다 ^^ 이것도 제 나름... 분석한거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ㅎㅎ</p>
<p>그럼 이제 어느정도 무엇을 준비하는지 윤곽이 잡혔나요?? 그럼 제가 위탁교육 2차에 최종합격 명단을 확인하고 난뒤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p>	
1	<p>Q) 위탁교육 붙으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요?</p> <p>A) 우선적으로 말하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먼저가있는 선배, 동기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붙고나서는 좋았는데 막상 이제 무얼 해야하나....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처럼 고민하지 말고 밑에 과정대로 준비하면 아마 큰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과여서 대학교 LAB실 선택이 주 내용이기때문에 문과전공에 붙은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p> <p>① 본인이 붙은 과정에 1~2년 전에 어떤 선배가 붙었는지 찾아본다(이름, 핸드폰번호, 어느 대학인지)</p> <p>- 본인과 동일 전공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전공이라면 우선 찾아둔다</p> <p>- 여기서 본인이 어떤 대학에 지원하느냐는 위탁교육 계획상에 맨 우측 비교란에 본인 전공과 관련된 대학교가 있습니다. 3~4개 대학교가 기입되어 있을텐데 이 중 1가지를 정하거나 선배들이 많이 포집해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과인데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님 그리고 선배들께 여쭙보니 아무래도 SNU, KAIST를 추천해줘서 이 중 고민을 했죠... KAIST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SNU를 최종적으로 택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IN SEOUL^^</p> <p>② 이과분들은 동일 전공에 계신 분들께 여쭙보면 군 위탁생을 잘 써주시는 또는 군 위탁생이 있는 연구실의 정보를 얻게되실 겁니다. 한 개 전공당 10명 이상의 교수님이 계실텐데 제 경우를 들어보면 산업공학과 빅데이터분야 인데 산업공학과에 빅데이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은 2~3명 뿐이었습니다.</p> <p>③ 이후 해야되는 부분은 교수님들께 과연 내년 입학을 희망하는 군 위탁생인데 혹시 석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군 위탁생으로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교수님에 관한 정보는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 김박사넷”에 들어가서 해당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마치 영화보기전 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평점 (참고는 하지만 신뢰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④ 해당 교수님의 메일이 각 교수님별 홈페이지(신기하게도 교수님별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음)에 기입되어 있는데 주로 GMAIL이나 NAVER 메일이 아닌 약간 학교 내부메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시는데 조금 늦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종합격 이후 거의 정보를 찾아서 컨택 메일을 보냈는데 2주 뒤에 오시는분, 대부분 1주 안에 답장이 왔습니다.</p> <p>⑤ 이렇게 하면 교수님께서 “미안하네, 내년에는 석사를 안뽑기로 했네” “한 번 찾아오시게” 라는 답변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는 3분이었고, 마지막 동아줄 1분의 교수님께 같이 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조금 행복했습니다)</p> <p>⑥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까지 가서 지원하기 전에 얼굴을 뵙기가 제한이 돼서 교수님께 정중히 ZOOM을 통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였고 흔쾌히 승인해주셔서 시간을 잡고 ZOOM을 통해 연락을 해서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공관련 공부 이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p> <p>⑦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추석입니다. 제 동기들이 위탁관련 팁을 요청을 해서 시간있을 때 작성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입니다.</p> <p>⑧ 대학원은 주로 10월 초, 10월 말에 지원을 합니다. 이 또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다면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입학전형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 지원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수학 계획서(대학원), 증명사진, 학사 증명서(대학교 성적) 이 정도?</p>

	<p>⑨ 이 정도까지가 위탁교육 불고나서 제가 준비했던 과정이고, 불고나서가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원한 과정이 최근 발전하는 분야(빅데이터, 인공지능)라서 거의 정보가 없었고, '17.3월 졸업이후 제가 공부한 것은..... 영어공부 이외에 다 부대업무, 훈련만 했기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같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할 것 같으면 그냥 위탁교육 붙은 동기, 선/후배님들께 편하게 전화하십시오^^ 저도 전혀 모르는 선배들께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p>
--	--

나. 1차를 붙었습니다. 2차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위탁교육간 나오는 주요 질문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개개인이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약간 문제은행같은느낌?
-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군인복무 및 지휘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작은 책자)를 준비한 많이 활용하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공보정훈부에서 발간한 흰색책자?)를 참고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조언해드리는 부분은 무조건적인 암기(예를 들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도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의 정의는 2~3줄 말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처럼요.
- ① 00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가 했던 답변은 00은 00으로 00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 생각은 00한 것입니다.
- ☞따라서 책자 속에 있는 단어(군인정신, 교육훈련 등)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야하며, 이에 따른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쯤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암기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안외워갔습니다....
- ② 위탁교육을 받으면 대학원생 및 미래에 있어서 민간인들과도 업무를 하게될텐데 이를 바탕으로 위탁교육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는 제가 활용분야가 방위사업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나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학원에 가면 일반 대학원생과 교육받을 것이고, 이과분들의 경우 연구실에서 교육할 것이고... 등등 따라서 생각해볼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4번 면접중 3번을 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답변은 정직이라고 했고, 육군 3대 가치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을 내세우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본인만의 답변을 생각해보십시오
- ③ 본인의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서 말해봐
- ④ 병영문화혁신 및 부조리 관련 본인의 생각
- ⑤ 너 이 과정 지원동기에 대해서 말해봐
- ⑥ 본인의 장단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 ⑦ 위탁생의 자세 (2번 질문과도 비슷?)
- ⑧ 기본법(명령복종의 의무, 전쟁법 준수의 의무, 사적제재의 의무) : 모든 걸 준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 이 개념이 개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안다면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⑨ 시사문제 : 통일의 중요성,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본인의 의견, 분단의 과정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미동맹의 중요성 ?
- ☞ 사실 저는 이과기도 하지만 정치적, 시사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과분들의 경우에는 전공관련 질문도 한하는데... 이는 유사 과정에 붙으신 선배분들께 조언을 구하는게 좋을 것같고, 이과분들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런 심층질문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니까?

- ① 우선 BLIND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 전투복의 오버로크(공수윙, 명찰, 부대마크 등) 다 가립니다.
- ② 면접 대기실이 있는데 우선 대기실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지원한 과정과 유사한 전공이기에 같이 있는것이고, 같은 날에 면접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지원한 과정에 지원한 경쟁자가 누군지 궁금하겠죠??? 처음 지원하다 보면 내 경쟁자가 누구일까 경쟁률은 어떨까 고민할텐데.... 3번정도 지원하고 나니깐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그냥 '21년도 지원할때는 아무런 경쟁의식도 없이 면접만 보고 나왔습니다.
- ③ 긴장이 되겠지만, 면접 내부도 궁금하겠죠? 면접 내부로 들어가면 4분의 면접위원이 계십니다. 주로 중령, 대령이시고 아마 기억상에는 대부분 전투병과는 아니고 기행병과 분들만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는 분들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모르는 분만 계시는 게 나을수도?? 이때, 전혀 본인을 밝히는 이름, 군번을 말하면 안됩니다.

④	<p>1번 면접위원께서는 이 과정을 지원한 동기(왜 지원했냐)를 물어봅니다. 저는 개인당 10분의 면접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1번 질문을 가장 길게 준비하고 가장 준비된 답변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후회하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위원이 그만 말하라 할때까지 답변하는 것입니다.</p> <p>2번 면접위원께서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또한 정의와 개인 생각을 말하기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p> <p>3번 면접위원은 위탁교육과 관련된 질문(추후 위탁교육 받으면 민간인과 교육받을텐데 무엇이 중요할까 / 00전공을 지원했는데 00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준비한 게 있는지?? 등등)</p> <p>4번 면접위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의 질문이나 시사관련 문제입니다.</p> <p>자, 무언가 느낌이 오죠? 1,2번을 최대한 길게 답변을 해야 3번,4번을 답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개인당 10분이라는 면접시간 속에서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답변을 자신있게 해야 그만큼 후회도 적고, 모르는 질문에 대해 당황하지도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2번은 거의 다 말하고나니 면접위원들께서 3,4번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만 개인생각을 답변해라라고 하셨습니다.</p> <p>☞저는 그냥 평범한 장교입니다.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을 여러분들도 많이 한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고민하는 사항이 분명 있을텐데 낮가리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주시면 반드시 제가 했던 고민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가는 것이 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했던 고민도 있는데, 20~30년 군생활에 있어 2년의 위탁교육이 제 군생활을, 제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도 있기에 끝까지, 될 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기는 게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받는 분들은 주로 제 동기나 지인이기에 개인정보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궁금하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답변이므로 너무 신뢰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것이기에 지원해라, 지원하지 마라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군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히 생각하고 떨어지면 마음 아프지만, 분명 군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p> <p>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 생활동안 많은 고민 중 하나가 위탁교육일텐데 부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p>
---	---